

새터민 심층인터뷰를 통해본 통일과 그 이후¹⁾

교회 공동체를 통한 재사회화의 가능성

조 성 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목회사회학)

1. 삶의 단절로서의 통일과 재사회화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일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일’인 ‘정치적 통일’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하나의 필수적인 사건으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치적 통일’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며, 더 나아가 삶의 단절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이질적인 두 사회의 물리적 통합인 ‘정치적 통일’은 각 개인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한 사회가 가지는 연속적 가치체계의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사회화 과정의 단절’을 의미한다.²⁾

여기서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겪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감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학습하게 되며, 특히 자아와 인성을 형성”³⁾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는 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⁴⁾ 이런 맥락에서 통일은 각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단절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의 환경과 조건들, 새로운 삶의 규범과 규칙들, 새로운 상호작용의 대상들은 이전에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형성해 왔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이전에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고 형성하여 온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두 국가의 통합은 될지 모르지만 각 개인들에게는 삶의 단절일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들에게 재사회화의 과정을 강요하는 시발점일 수밖에 없다.⁵⁾ 정치적으로만 봉합(縫合)된 그 사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1) 이 조사연구는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과제인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 삶의 단절로서의 통일과 통일 후의 재사회화”(과제번호: KRF-2007-321-A00071)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2) 독일의 정치적 통합 이후에 겪게 되는 사회문화적 분열에 대해서 김누리, 『정치경제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분열』, 김루리 편저, 「머릿속의 장벽.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과주: 한울 2006) 19-61.

3) 한국산업사회학회 역음, 사회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8) 90.

4) 조성돈,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서울: 토라 2004) 110.

새로운 삶의 환경이 강요되는 것이고, 역으로 지금까지 익숙해져온 삶의 환경은 단절되는 상황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독일처럼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회적 의미의 통일은 우리들에게 해결해야할 커다란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적 통일’ 후(後)에 있게 될 ‘사회적 통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가 ‘통일 후’ 전개되어야할 재사회화(resocialization)⁶⁾를 통한 사회통합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이유는, 삶의 단절로서 통일을 경험하는 각 개인들이 재사회화를 거쳐서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게 될 때 바른 의미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사회화의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공동체라고 하는 준거집단의 제공에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형성이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재사회화의 장(場)으로서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⁷⁾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 중의 하나인 종교적 공동체, 본 연구와 관련지어서는 기독교적 공동체가 가지는 사회통합의 기능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개신교회가 성장한 배경중의 하나에는 고향을 떠난 북한 실향민들을 품에 안았던 교회의 공동체성이 있었다.⁸⁾ 그들은 고향을 떠나오면서 도시에서 겪게 된 상황 정의와 자아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준거집단을 얻게 되고 그 소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요구되는 가치관과 행동준거들을 얻게 된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공동체는 고향과 가족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서적 안정까지 주었던 것이다.

통일은 남과 북, 양 사회의 깨짐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 사회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급격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해석과 준거의 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들에게는 재사회화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재사회화는 새로운 준거집단의 소속을 통하여 손쉽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동체를 마련해 줌으로써 재사회화의 과정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⁹⁾

이런 전제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재사회화되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간 그들이 쌓아왔던 가치체계나 규범들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고 다시 세워져야할 때에 어떠한 것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세워진 가설은 그들에게 새로 세워진

5) 조성돈, 2004. 110f.

6) 재사회화에 관해서 조성돈, 2004. 111.

7)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 삶의 단절로서의 통일과 통일 후의 재사회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학술회의 자료집 2008.6) 2.

8) 김병서, 「한국사회와 개신교」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89f. "인간이 긴장과 혼란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 질서 개념인 자아 정체(self-identity)와 상황정의(definition)이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준거 집단(reference group)이나 공동체에 속해서 사회적 자아(the social self)를 이루고 자아정체를 정립, 인식하게 되며 자기와 일반화된 타자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생성되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자아 정체체가 바로 정립됨으로써 상황 정의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도 준거 집단에의 참가로서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9) 조성돈, 2004. 122f.

공동체가 준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해지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 가능성을 알아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지난 2008년 1월 27일부터 동년 4월 5일까지 17명의 탈북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어졌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인터뷰가 의미가 있는 것은 탈북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삶의 단절을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 삶을 살게 된 그들이 어떻게 재사회화를 이루어냈는지를 추적해 보고 그 가운데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어떤 가능성을 갖는지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관심을 따라 심층 인터뷰를 서술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심층 인터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심층 인터뷰’는 수량화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 제도의 형성 과정을 참여자의 내면에서부터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건, 행위, 소통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된 심층면접법을 사용했다. 이는 미리 조직적으로 짜여진 조사표나 질문서 대신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하고자 하는 자료를 얻는 데 최소로 필요한 면접지침만으로 매우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면접자가 피면접자의 언어적 반응을 얻어내는 방법이다.¹⁰⁾

이러한 심층인터뷰는 경험적 사회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¹¹⁾에 속한다. 과거 사회연구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통계였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Social Research’라는 방법론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 방법은 양적분석의 방법과 규격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양적연구에 의존하는 연구방법에서 질적 연구방법으로 그 경향이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평적 사회학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이 질적 연구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방법의 장점은 통계가 놓치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주체적 입장이나 생각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10) 조성돈, 2004. 41f.

11) 조성돈, 2004. 36.

12) 조성돈,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서울: 2004 토라) 36.

3. 통일 이후의 대안공동체

3.1 단절과 회복

3.1.1 변화하는 북한 사회

북한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었다. 물론 북한사회는 사회주의라는 특별한 사상적 집단이다. 비록 탈북한 사람들이라도 사회주의가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다들 인정을 한다. 단지 그것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의 문제가 있다고 이해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좋은 사상이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김일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에 탄압도 생기고 살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의식은 아마 교육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어려서부터 교육되어진 사상¹³⁾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못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분리는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라고 보인다.

한 여성은 말하기를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저주하고 거부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 내지는 주체사상의 뿌리가 아주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실제의 영향력을 아직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조차도 사상과 분리하며 합리화하려는 시도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떠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일상적인 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탈북자들의 경우로 볼 것 같으면 과거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대부분 북한을 떠났다. 즉 중국에 가서라도 식량을 구하여 자기 한 목숨 구하려는 의도나 자신이 식량을 구해서 가족을 살려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에는 먹고는 살만해졌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사회가 변했다는 것이다. 한 증언이다.

언니들이 8년,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을 때는 김일성의 상 올리고 제일 바쁘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할 때였지만 제가 떠날 때는 다소 안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 만일 80%가 소란스러웠다면 제가 떠날 땐 30%가 소란스러웠고 70%는 안정된 상태였어요. 제가 떠날 때는 별로 죽는 사람을 못 보고 왔어요. 2005년 10월 그때면 죽은 사람은 다 죽고 평안한 상태, 언니들이 8년, 10년 전에 떠날 때는 한창 죽고, 굶주리고 이럴 때예요. 제가 떠날 때는 이제 죽은 사람, 살지 못할, 방향을 잡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13) 북한의 사상교육에 관해서는 송복,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 한국사회학회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9) 116-137. 129ff.

자기 자리를 다 찾기 시작한 때죠. 경제를 하는 사람은 시장경제를 하고, 문품을 나르는 사람은 문품을 나르고, 체계가 거의 잡힌 상태였어요.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언니는 시장에 앉아서 음료수를 팔았는데 정기적인 수입이 나올 정도로 했었고, 다른 분들도 보면 체계적으로 물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은 장사도 하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먹고 살 수 없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 소위 말하는 당성이 좋거나 고지식한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었다는 것이다.¹⁴⁾ 그들은 요령이 없이 정부에서 주는 배급¹⁵⁾만을 기다리다 죽은 것이다. 특히 교사들이 이 시기에 많이 죽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들이 고지식한 탓일 것이다. 이어지는 증언에 보면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 살아가는 법을 다들 터득했고 이제 시스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쪽 이야기로 ‘승냥이와 여우만 남았다’고 한다. 공산주의에 의해 교육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죽고 약아빠진 승냥이와 여우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사회도 나름의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곳에서 보이기도 한다. 북한은 볼 때 남자들이 상당히 가부장적이다.¹⁶⁾ 이것은 탈북자들에게서도 보이는데 남자들은 전혀 집안 살림을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체면을 중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남자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이 활동력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제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 있을 때도 남자들은 진짜 무능력해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가부장적인 것이 지배가 되어서 자기들은 나가서 ‘꼴라, 꼴라’ 뭐 이런 것은 못 한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 그래서 그 명예라고 얘기한 것이 한마디로 남자는 체면 때문에 굶힐 수 없다는 거죠, 얼굴에 철판을 못 깎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벌어 와라, 나는 집에서 야기 보고 밥 할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답답하니까 남자에게 이혼하자고 하고 제가 있을 때 98년도에 남자들 보고 집 지키는 강아지라고 하고 그랬어요. 결혼을 해도 여자가 애를 안 낳겠다고 해도 남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벌어서 먹일 것이 아니니까

14) 박중소, 『9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통일. 삶의 단절로서의 통일과 통일 후의 재사회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학술회의 자료집 2008.6) 16-27. 18.

15) 북한의 식량배급 상황에 관해서 좋은벗들 편,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서울: 정토출판 2000) 66-82.

16)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에 관해서 김상수, 「북한 사람들에게 듣는 북한이야기」(서울: 여백미디어 2005) 148-153.

즉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마저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의 방향이 옳으나, 그르냐의 가치적 판단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인 가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북한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그들은 나름 가족이라는 것이 삶에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화는 사회적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이전에 탈북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권력을 답하였다. 정치의 영향력이 크고 독재체제이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2005년도에 탈북한 사람의 대답은 조금 틀렸다. 그는 말하기를 권력이 최고이지만 돈도 좋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김정일에게 인정받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안 되면 돈이라도 많아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돈만 있으면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사람을 죽여도 높은 사람에게 돈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차도 살 수 있고, 배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솔직히 돈만 있으면 여기보다 그곳이 사는 것이 더 쉽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기서는 아무리 내가 불법으로 거래하고 해도 돈만 찢러주면 다 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내 밑에 와서 설설 기고, 도라주고, 다 해주니까. 그리고 돈만 있으면 그 돈을 다 벌게끔 해주니까.

그의 증언을 보면 북한은 현재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탈북자들도 얼마의 돈을 가지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탈북의 경로가 다르고 그 고난도 덜한 것으로 증언된다. 북경을 넘을 때는 경비병들에게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이다. 그리고 그의 증언에서 보듯이 돈이 돈을 번다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돈이 불법과 반도덕적인 행위마저도 가능하게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다.

3.1.2 단절의 경험 - Anomie

탈북자들은 대부분 탈북 이전이나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북한정권이 남한에 대해서 지극히 허구적인 선전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미 알다시피 그들은 남한이 미국의 착취에 의해서 아주 못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있다. 그들이 비록 못 살고 있지만 남한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더구나 극단적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탈북을 하여 남한의 방송이나 드라마 등을 보면서

그러한 선전이 허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정권에 속고 살았다는 실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남한에 대한 거짓들이 드러나면서 체제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다. 황장엽의 탈북은 북한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왜 북한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의식을 깨우쳤다는 이야기가 몇몇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남한의 사회교육방송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기도 한다. 또는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도 창조론을 배움으로 생각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거의 모든 탈북자들이 겪는 경험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종교적 회심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충격들이 통일 이후에 집단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미 언급한 같이 삶의 단절로 경험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아노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¹⁷⁾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체계라든지 규범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체계에 들어서지 못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탈북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한 아노미가 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붕괴되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실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사회적 아노미¹⁸⁾를 겪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가치의 붕괴가 남한에 대한 기대치와 연결되어진다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정부가 주는 것에 의지하여 살던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남한이 그들의 필수적인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이들의 기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와서도 그것이 힘든 부분인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꿈은 가지고 와요, 코리아 드림이라고,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한국에 오면 뭐든 북한에서처럼 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굳이 내가 나의 딸과 노력을 안 드려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다 밖으로 표출이 돼요.

17)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351. 전우택은 수동적으로만 살았던 북한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경쟁에 대한 심리적 부담, 권위와 가치감의 혼란, 경제적 열등감으로 인한 고통, 돈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감정으로 인한 고통 등이 통일 이후에 북한 사람들에게 닥칠 것으로 보았다.

18) 뒤르켐의 자살론 5장 '아노미성 자살'을 보시오. 그 외에 마르코 오루(임희섭역), 「아노미의 사회학」(서울: 1990 나남); 신동준,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머튼의 아노미이론 검증을 위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제38집 4호(2004). 33-71.

일단 정착금이 주요, 그것이면 땀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면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든지 환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반대잖아요. 옛날에 96년, 97년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반대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본인이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내 땀과 노력을, 시간을 드려서 내 것을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있다 보면 누가 도와주겠지 이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금방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대개 답답해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것이 심각한 아노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이후에 정신적으로는 기존의 틀들이 급격하게 붕괴되어지고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한다.

3.1.3 자유에의 동경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와서 가장 만끽하는 것은 자유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 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일하고 수고하여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사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규정대로, 책대로 하잖아요. 우선은 첫째로 그것이 싫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짐승도 아니고 목을 메어놓고 조직의 규율대로, 저도 그런 것을 해봤거든요.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왜냐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오라, 가라, 나가라, 안 오면 또 무대에 세우고, 욱하고,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람이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주면 재미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시키고 공산주의요, 미풍이요, 뭐요, 하면서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힘들어도 일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먹고 살수가 있잖아요. 원래 북한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에서 일하는 것만큼 여기 와서 일을 하면 다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북한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동경이 있다. 워낙 엽매인 사회였기 때문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아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직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신이 직접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것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만끽하는 것이다.

3.1.4 체제에 대한 긍정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탈북자들이 남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낮은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자신들이 선택해서 이 나라에 왔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면 살만큼은 되니까 좋다는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그들은 분명 약자이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현실에 직면해 있을 텐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남한이 좋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기가 천국인데 남한 사람들이 오히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한다. 남한 정부에 대해서 섭섭한 면이 없냐는 질문에 한 여성은 아래와 같이 대답한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온 때 어느 정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아마 저도 그런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다른 분들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으로 온 때 너무도 길을 찾지 못해서 내가 이 땅에만 떨어져 봐라, 내가 진짜 능력대로 마음껏 살아보겠다. 일단 자유가 있고, 그런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한테 안 해주어서 서운하다, 뭘 저기해서 서운하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답을 듣고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행복한가고 물어 보았다.

네, 저는 행복해요 저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노력을 했지만 대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노력을 하면 대가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을 때는 그런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북한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은 남한에서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그 대답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다. ‘정말 그들이 진실일까’하는 생각이다. 혹시 거짓 증언에 익숙해 있는 이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정도는 그러한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면 진실일 수도 있다. 뒤에서 더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들은 계급에 대해서는 숙명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숙명론의 입장에서 자족하는 법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혹 사회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왔을 것으로 보인다.¹⁹⁾

19) 이번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연구팀은 통일된 독일을 찾았다. 거기서 만나본 대부분의 동독출신 주민들은 의외로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간 우리가 접해본 자료들

3.1.5 소 결

탈북자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통일 이후가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능성을 보게도 된다.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사람은 5년 쯤 되니까 적응이 된다고 하고 한 사람은 6년이 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한다. 비록 급격한 변화이지만 사람이 변하고 사회적 변화에 적응되는데 드는 시간이 5~6년 쯤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²⁰⁾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이고 진정한 변화와 통합을 위해서는 그 이후부터라고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가 6년 되었는데 6년 되고 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깨달아 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과 꿈을 향해서 가려는 마음의 의지가 생기고, 내가 설 수 있는 기준이 서게 되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모르는 면이 너무 많고, 생소하니까 우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데 이쯤 되니까 조금 깨달아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북에서는 내가 아닌 나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영희지만 이영희 본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로 움직였으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몸이 그냥 따라 움직인 거예요, 지금도 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못 찾겠어요. 삶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식량 사정으로 나라가 망치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지. 이북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동부에서 배치해 주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조금 힘이 있으면 돈이나 물건을 주고 쉬운 직업으로 돌릴 수는 있죠.

3.2 북한의 공동체

에 의하면 동독지역민들은 많은 문제를 통일 이후에 겪고 있다고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통일 이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개신교 목사의 증언이다. “동독 사람들 중에 “우리 옛날 동독이 좋았다, 서독이랑 통일이 되고 나서 이러저러한 것 이 맘에 안 든다.”라고 하는데 이분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이 박물관에 와서 예전에 동독의 실상을 찍어놓은 사진들을 봐야 되고, 한 예로, 우리가 자유를 가졌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은 자기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과일이 벌레 먹었다고 탓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전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것 때문에 책도 마음대로 못 읽고 그랬는데 지금은 책도 마음대로 읽는데 이런저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몇 가지 불편한 것으로 불평만 한다.”

20) cf. 전태국, 『한국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학회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77-107. 83. 전태국은 독일의 예를 들어 외적 통일 이후에 내적 통일을 이루기까지 적어도 10-15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2.1 왜곡된 공동체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표어 중에 하나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고 한다. 아마 이 표어는 북한이 가지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왜곡된 공동체’라고 본다. 북한의 공동체는 당이 중심이며 그 중앙에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개인이 없고 조직만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것은 공동체라기보다는 학습되어진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자유, 정치 이런 것은 생각이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위에 사람만 쳐다보게 만들어 났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자꾸 삐뚤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대답: (남한의 젊은이들은) 철은 없는데 자립심은 대개 강하더라고요.

질문: 자립심이요, 북한 사람은 안 그런데?

대답: 북한 사람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특에 짜여진 것만 하면 되니까,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질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은?

대답: 알아서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죠. 그것은 반항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투쟁을 해요. 양파예요, 양파.

질문: 남한 식으로 창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대답: 뛰어나면 안돼요, 거기는 그냥 남들이 한 발짝 가면 똑같이 한 발짝 가야되고 그 이상, 그 이하를 하면 안돼요.

질문: 그게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대답: 그렇죠.

위의 두 응답자의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개인이 없는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자세히 보면 개인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체만 있는 전체주의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결국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인 도덕이나 양심마저도 왜곡하고 만다.

질문: 남한은 개인주의이고, 자기중심이고, 다른 사람을 별로 배려하지 않고 그런데 아까도 좀 여쭙보긴 했는데 북한에서는 공동체라고 할까, 다른 어려운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답: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식이 있죠, 사회주의 이론에. 그것을 개인주의 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계속 고취하면서 도덕과 양심을 같이 교육을 합니다.

질문: 북한에서 말하는 도덕과 양심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대답: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론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더 잘 이론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가져다 끼어야 되니까 첫째는 그렇게 되면서 이상하게 변질적으로 수령이 첫째가 되었어요. 원래는 수령이 첫째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첫째다, 거기에 수령을 넣어서 수령을 잘 모셔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올바르게 된다. 거기에 뜻을 보면 도덕, 양심, 사회주의, 공산주의 양심과 도덕이죠,

질문: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나요?

대답: 강조해요, 인사도 시키고, 다 있어요. 대학에서도 공산주의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북한에서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전제되어야 할 개인도 없고 공동체를 지탱해 내야 할 도덕이나 양심마저도 없는 단순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도덕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정치적 집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2.2 계급 안에서의 공동체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평등일 것이다.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²¹⁾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다른 계급에 대해서는 그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당히 숙명론적인 입장에서 그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벌써 학생 때부터 이루어진다. 토대가 좋지 않고서는 대학에 진학이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의 말로 ‘백두산 줄기를 타야한다.’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이 토대가 안 되면 출세할 수가 없다. 일정한 부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다. 정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권력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 출세가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삶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몇몇은 탈북을 결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가 워낙이 공고하다 보니까 계급에 대한 숙명론이 자리하고 있다. 분명 당 간부들이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데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워낙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같은 계급에

21) 전우택, 2007. 363.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에 북한 사람들이 민감함을 설명.

있는 사람이 배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든지 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아마 전체주의가 만들어낸 왜곡된 정서라고 보인다.

3.3 기독교는 대안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3.3.1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이 논문에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과연 이렇게 왜곡되어진 공동체에 바탕 되어진 북한사회가 통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²²⁾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래에 소개되는 선교사에 얽힌 이야기이다.

대체적으로 거기 사람들은 옛날에 선교사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교사가 라수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예배당도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꼭대기에서 사과가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 썩은 사과를 주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개를 풀어서 그 어린 아이를 물게 하고 그 아이를 나무에 매달아서 정광수라고 살이 타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마에 도적놈이라고 써서 천인공로한 만행을 선교사들이 한다, 선교사들은 다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지하실에서 사람을 죽이고 혁명을 말아먹는, 말하자면 혁명을 하자, 사회주의를 하자,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제일 큰 무기이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도 예수가 먼저 들어온다,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말만 들어도 떨거든요. 여기서 반공 교육을 받는 것처럼 교육을 했으니까요.

과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대안적 공동체로 내어 놓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통일 이후에 과연 기독교는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응답자는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한국의 목사들이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함부로 전도하다가는 총에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 반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 반감이 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의 목사들이 직접 들어가면 역효과만 나고 오히려 그 신변에 위협이 닥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22)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김상수, 「북한사람들에게 듣는 북한이야기. 북한의 오늘을 읽는 27가지 코드」(서울: 여백미디어 2005) 46-51.

3.3.2 탈북 이후에 만나는 기독교

탈북자들은 보통 북한을 탈출하면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서 교회를 만난다. 교회에서 도와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들 찾아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해외에 없다. 아마 유일한 도움의 창구가 교회일지도 모른다. 증언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90%는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이 남한으로 들어올 때 까지는 잘 유지가 된다. 그런데 남한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일부분 탈북과정의 어려움에서 간절하던 것이 사라지고 나니 먹고 사는 것이 바빠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실망하고 떠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회에 가면 너무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생활총화등과 같은 일들로 쫓겨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서 한국까지 왔는데 또 교회에서 사람을 자꾸 잡으니까 벌써 심적으로 반감이 생기는 것이다. 거기다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 놓고 교제를 나누자고 하는데 그것도 북한의 과거가 생각나서 싫다는 것이다.

저희가 이때까지 산 것이 다 같혀 산 것이니까 생활총화하고, 자기비판하고, 자기 생활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것을 생각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내가 뉘우치면서 교회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이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니깐 힘드더라고요. 아, 이것을 또 해야 하나, 감옥 윗타리 안에 갇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거기에 딱 인용해서 남을 비판하고, 학습시키고. 북한에 가게 되면 김일성 선집이라고 해서 이만큼 있어요. 일단 싫어요. 예수 믿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에 나가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공부 시켜야지, 회개해야지, 내야지, 됐다고요, 우리는 자유주의가 좋으니까 그냥 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인 것이 중국에 넘어와서 죽을 번하지 않았어요, 그 때 우리가 어디 갈 때가 없었잖아요. 교회 밖에 없어서 억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가야 우리가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북한이 열리게 되면 그냥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안돼요.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3.3 선교의 가능성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선교의 가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물질을 이용한 선교를 하라는 것이다. 뭐라도 주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돕다보면 사람들이 끌려서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해질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그냥 북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 빵을 주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물질적인 것을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북한 사람들 경우가 다 같거든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해봐야 짜증만 나오. 그러나 저도 처음에 받으면서 미안해하면 ‘이것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저 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났거든요. 훗날에 북한에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요만큼만 줘도 돼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요만한 것도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사랑인데 하면 가까이 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융화되면서 하나님 사랑이 전달이 되고 복음도 들어가죠. 북한 사람들은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아직은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가 빨리 될 수 있고 통일이 되었을 때 영향력이 클 수 있죠.

이 응답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관이 너무 낭만적이 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선교대상자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채워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외쳐서야 되겠는가. 탈북자 한 명은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한 이 방법과 절차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본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또 다른 응답자는 아주 주체적으로 이 문제에 해답을 주기도 했다.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북한이 열리면 다른 것은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차에 식료 만든 가마에 쌀하고 천막만 싣고 가면 되요. 길에다 천막을 치고 가마를 걸어 놓고 볏을 때고 밥을 해 놓고 다 오라고 해서 앉혀놓고 밥을 먹이고 예배를 드리면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라도 간다면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배고픈 것이 밥 밖에 없어요. 물론 찰떡같은 말씀이 배가 부른 다음에 들어가면 은혜가 되겠죠.

물론 쉽지 않은 상상이지만 탈북자들이 제시하는 이 방법이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한 재사회화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가 서야 그 이후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3.3.4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공동체의 가능성

이 논문의 결론적 부분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위의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독교 공동체가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질 있을 것

인가. 과연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환경과 사회화의 단절이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배우게 되고 삶의 준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데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교회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게 된다. 특히 설교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그리고 말씀의 적용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서 새롭게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한에서 탈북자들 교회가 있는데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그런 교회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남한 사람들 위주의 이야기이지만 탈북자들의 교회에서는 설교자도 탈북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다.

어떤 응답자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잘 말해 주었다.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나보다도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절대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너를 죽인다, 사람들이 서로 악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려면 그냥 가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오라고 하면 안 와요. 처음에는 쌀을 준다, 먹을 것을 준다고 하면 와요. 그러면서 와서 설교도 듣고 하면 자기 인생관이 생기는 거죠. 자기 살아온 것을 생각하고 지금 듣는 말을 비교하면서 뉘우치는 거죠. 점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사람이 인생관이 바뀌죠. 교회를 안 다니고 살다보면 그것이 바뀌기가 쉽지 않죠. 제가 군인이었을 때도 보면 저희는 다 20대이니까 성격이 다 사나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교회를 다니면 다 바뀌죠. 처음에는 힘드죠, 저희 북한에서 교회 나오는 것을 보면 다 나쁜 것으로 나와요.

이 응답자는 본 연구의 기대치에 아주 근접한 대답을 주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해석으로서의 설교, 행위의 준거로서의 신앙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4. 나가는 말

통일 이후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탈북자들이 탈북과정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탈북이라는 삶의 단절 상황에서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나 규범을 제공하는 준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는 중요한 재사회화의 도구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질 때 통일 이후에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재사회화의 장으로서의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지금과 같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고와 구조로서는 통일 이후의 사람들을 품고 변화시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첫 걸음은 건전한 공동체로서의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는 사회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도덕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는 신뢰도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작년 11월 진행된 기윤실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람들 중 18.3%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고, 48.3%는 아주 명확하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서는 통일 이후에 통일한국의 문제를 감쌀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정말 통일을 준비한다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디아코니아의 역할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의 Community Builder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망의 통일이 머지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탈북동포들을 통해서도 그 현실은 더욱 가까이 느껴진다. 바라기는 교회가 이 통일의 과정에서 바로서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소망으로 무장하기를 기대한다.